

학령기 부모의 우울에 대한 가족 상호작용과 자아존중감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커플관계분석을 활용하여

한정원
고신대학교 간호대학

The Actor Effect and the Partner Effect of Family Interaction and Self-esteem on Depression of Parents in School Age: Analysis of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Han Jeong Won

College of Nursing, Kosi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학령기 부모의 가족 상호작용과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확인하여 학령기 부모의 우울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되었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패널 7차년도(2014년)의 1,475쌍의 자료를 SPSS 18.0 프로그램과 AMO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가설적 모형을 분석한 결과, 총 10개의 가설 중 3개의 가설은 기각되었다. 부모의 가족 상호작용은 자아존중감에 자기 효과(어머니 $\beta=0.47, p<0.001$; 아버지 $\beta=0.47, p<0.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가족 상호작용($\beta=0.19, p<0.001$)과 자아존중감($\beta=0.46, p<0.001$)은 우울에 자기효과는 있으나 아버지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가족 상호작용($\beta=0.42, p<0.001$)과 자아존중감($\beta=0.21, p<0.001$)은 우울에 자기효과는 있으나 아버지의 가족 상호작용은 어머니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았으며, 아버지의 자아존중감($\beta=-0.15, p=0.011$)만이 어머니의 우울에 상대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아동의 우울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학령기 부모의 우울에 대한 영양요인들을 확인함으로써 부모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간호 중재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임상에서 간호사들이 부모의 우울을 조절하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ovide basic data about the depression of parents with school-aged children by identifying the actor and partner effects of family interaction and self-esteem on depression among parents with school-aged children. Data on 1,475 pairs from the Wave 7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were analyzed by using the SPSS 18.0 program and the AMOS 18.0 program. From the analysis of a hypothetical model, parents' family interaction exerted an actor effect on self-esteem. Mother's family interaction and self-esteem exerted an actor effect on depression; however, the partner effect on father's depression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Father's family interaction and self-esteem exerted an actor effect on depression; however, the partner effect of father's family interaction on mother's depression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only father's self-esteem exerted a partner effect on mother's depression.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affecting factors of depression in school-aged parents, which are directly related to the depression of the child, were identified and the basic data of nursing intervention for the parents'. It is expected that clinical nurses will be used as data to convey professional knowledge to control parents' depression.

Keywords : Depression, Family, Interaction, Parent, Self-esteem

*Corresponding Author : Han, Jeong Won(Kosin Univ.)

Tel: +82-51-990-2384 email: hjw0721@kosin.ac.kr

Received March 16, 2017

Revised (1st April 11, 2017, 2nd May 15, 2017)

Accepted August 17, 2017

Published August 31, 2017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현대사회는 여성의 취업이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전환되는 시기로, 우리나라 여성의 취업 현황은 20세 후반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결혼 및 출산, 육아와 관련하여 30대 초반에서 후반까지 일시적으로 감소하다 다시 증가하는 M자형 구조를 지니고 있다[1]. 여성의 취업이 증가하면서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추구하던 육아와 가사 문제가 남성과 여성의 공동구역으로 변화되었고, 일과 가사를 병행하는 부모들은 사회와 가정에서 다양한 역할을 경험하고 있다[2]. 특히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는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좋은 양육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까지 지니고 있지만 바쁜 사회생활로 인하여 부모들은 자녀들과의 접촉의 시간이 감소하면서 올바른 양육에 대한 부담감을 호소하며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도 경험하고 있다[3]. 부모가 경험하는 양육 스트레스의 정도가 높고 장기화가 되면 부모는 우울을 경험할 확률이 높아지고, 부모의 우울은 자녀와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만들뿐만 아니라 아동의 문제 행동을 증가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기 때문에 학령기 아동에 대한 간호에는 부모에 대한 간호 중재도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4].

아동의 성장·발달과 관련이 있는 부모의 우울은 자녀에게도 전이될 수 있으며, 특히 부부는 상호역동성이 강한 관계이기 때문에 부모 중 한 사람이 우울을 경험하면 가족 전체로 우울이 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5]. 이러한 이유로 부모의 우울에 관한 연구는 우울의 자기효과와 더불어 상대방 효과를 동시에 확인할 필요성이 있으며, 부모의 우울을 조절하기 위한 요인들도 상호작용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6]. 학령기 부모의 우울은 영향요인으로 양육 스트레스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지만[7], 최근에는 가족의 상호작용이 부모의 우울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가족 상호작용은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 의존성 및 유대를 나타내는 가족 응집력과 스트레스에 스스로 대처하기 위해 규칙을 변형시켜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가족 적응성을 포함하고 있다[8]. 가족 상호작용은 가족 관계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서로 타협하고 협력하여 가족에게 직면한 문제들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부모가 아이를 양육하면서 경험하게 되

는 역할에 대한 스트레스와 양육 부담감도 가족 간 상호작용이 원활하면 부모의 우울은 감소하게 되고[9], 가족 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은 인간 발달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사회화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아동의 발달과정에서도 중요한 요인이 된다[10].

스트레스-취약성 모델[11]과 스트레스-저항 모델[12]에 의하면, 동일한 스트레스에도 우울의 정도는 개인차가 있으며, 우울이 높은 사람들은 우울이 낮은 사람들과는 다른 인지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제시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근거는 스트레스와 상호작용하여 우울을 유발하거나, 완충시키는 인지변인에 관심을 가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으며, 스트레스와 우울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인지적 변인으로 자아존중감이 강조가 되고 있다[13]. 인간은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스스로를 가치 있고, 중요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새로운 과업을 수행하는 동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미래에 가치 있는 것이 될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 거부, 자기멸시, 불안 및 우울 등의 정서적 장애를 경험할 확률이 낮아지게 된다[14]. 한국의 기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15]에서 여성이 경험하게 되는 우울은 자아존중감을 통해 감소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고, 한국과 일본의 기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14]와 미국의 기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16]에서도 자아존중감은 기혼 여성의 우울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우울과 관련된 국내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부 갈등과 우울의 관계[17], 우울과 양육태도와 관계[18], 양육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19]를 확인한 연구들이 보고되었고, 국외의 연구들로는 부부간의 만족도,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20], 부모의 건강상태와 우울의 관계[21]를 확인한 연구들이 보고된 바 있다. 그러나 부모의 우울은 상호전이성이 강한 속성이 있고 부모의 우울은 가족의 상호작용과 자아존중감이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인들을 통합적으로 접근한 연구들은 미비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Actor and 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PIM)을 근거로 하여 부모의 우울에 대한 가족 상호작용과 자아존중감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확인함으로써 학령기 부모의 우울 중재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2014) 7차 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학령기 부모 우울에 대한 가족 상호작용과 자아존중감의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부모의 우울에 대한 간호중재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확인한다.
- 2) 대상자의 가족 상호작용, 자아존중감, 우울의 정도를 확인한다.
- 3) 대상자의 가족 상호작용, 자아존중감, 우울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 4) 대상자의 가족 상호작용과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를 확인한다.
- 5) 대상자의 가족 상호작용과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직·간접 효과를 확인한다.

2. 본론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7차 년도(2014년) 조사 자료를 활용하고 커플관계자로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학령기 부모의 우울에 대한 가족 상호작용과 자아존중감의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서술적 인과관계 연구이다[Figur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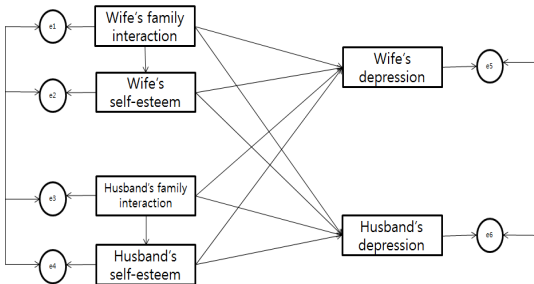


Fig 1. The model of research

2.2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2014) 7차 년도의 본조사와 어머니, 아버지 설문조사에 모두 참여한 총 1475쌍의 부모를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경로분석에서

표본 수는 최소 200명 이상이 적합하므로[22], 본 연구에서 1475쌍의 부모는 경로분석을 시행하기에 적합한 표본 수로 확인되었다.

2.3 연구 도구

본 연구의 측정 도구들은 한국아동패널(2014) 7차 년도에서 측정된 항목들의 일부로 이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선정하였다.

2.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어머니, 아버지 설문지에 공통으로 구성된 나이, 교육수준, 직업, 가구소득, 아동의 연령, 결혼유지 기간을 선정하였다.

2.3.2 가족 상호작용

가족 상호작용은 Olson [23]이 개발한 측정도구를 한국아동패널 조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및 보완된 총 14문항(2개의 하위요인: 응집성의 균형과 유연성의 균형)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별로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대체로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 상호작용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Olson [23]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0.84-0.89$ 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0.91$ (어머니)과 Cronbach's $\alpha = 0.92$ (아버지)로 나타났다.

2.3.3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senberg [24]가 개발한 Rosenberg self-esteem scale을 한국아동패널 조사에 맞게 번역 및 수정·보완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별로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대체로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Rosenberg [24]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Guttman scale coefficient of reproducibility 0.92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0.89$ (어머니)과 Cronbach's $\alpha = 0.87$ (아버지)로 나타났다.

2.3.4 우울

우울은 Kessler 등[25]이 개발한 측정도구로 한국어 동패널 조사의 목적에 맞게 번역 및 수정·보완된 총 6개의 문항이며, 각 문항은 전혀 안 느낌(1점), 별로 안 느낌(2점), 종종 느낌(3점), 대체로 느낌(4점), 항상 느낌(5점)의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Kessler 등[25]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0.89$ 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0.92$ (어머니)와 Cronbach's $\alpha = 0.93$ (아버지)으로 나타났다.

2.4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육아정책연구에서 운영하는 한국어 동패널(<http://panel.kicce.re.kr>)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구 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의를 거친 후 자료를 제공 받았으며, 제공된 자료는 개인정보를 알 수 있는 민감한 자료들은 삭제된 상태로 제공되었다. 또한 본 연구는 K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KU IRB 2017-0026-01) 시행되었다. 자료의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입력, 및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WIN 18.0 (SPSS Korea Data Solution Inc)과 AMOS 18.0 (SPSS Korea Data Solution Inc)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실수,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으며, 대상자들의 가족 상호작용, 자아존중감, 우울의 정도는 평균, 표준편차를 분석하였다. 또한 대상자들의 가족 상호작용, 자아존중감, 우울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가족 상호작용과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경로분석을 통해 자기효과와 상대효과를 분석하였고, 가족 상호작용과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직·간접 효과는 부트스트랩을 통해 확인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어머니의 평균 연령 36.81세, 아버지의 평균 연령 39.27세이며,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자가 635명(43.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아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Variables	Category	(N=1475 dyads)			
		Mother		Father	
		n	%	n	%
Age (yr)	<30	28	1.9	5	0.3
	30-35	522	35.4	234	15.9
	36-40	708	48.0	717	48.6
	≥41	217	14.7	519	35.2
	M±SD	36.81±3.69		39.27±3.99	
Education	Under middle school	5	0.3	7	0.4
	high school	425	28.8	391	26.6
	College	406	27.5	299	20.3
	Over bachelor's degree	635	43.1	772	52.3
	Non-response	4	0.3	6	0.4
Occupation	Manager or white collar job	443	30.0	683	46.3
	Service sector or sales person	127	8.6	195	13.2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y	3	0.3	19	1.3
	Engineer or machine fabricators	28	1.9	352	23.9
	Simple labor	36	2.4	36	2.4
	Unemployed (Include student and housewife)	833	56.5	65	4.4
	Others & non-response	5	0.3	125	8.5
				406(27.5)	
Family income (Ten thousand won)	≤300	406(27.5)			
	301-400	399(27.1)			
	401-500	332(22.5)			
	≥501	338(22.9)			
	M±SD	446±199.82			
Age of Child (month)	M±SD	75.09±1.42			
Marriage period (month)	<96	489(33.2)			
	96-120	423(28.7)			
	>120	557(37.8)			
	Non-response	6(0.4)			
	M±SD	119±38.0			

M=Mean, SD=Standard deviation

Table 2. Comparison of the level of between mother and father

(N=1475 dyads)

Variables	Mother			Father		
	M±SD	Skewness	Kurtosis	M±SD	Skewness	Kurtosis
Family interaction	3.78±0.53	-0.81	2.38	3.82±0.56	-0.58	2.17
Self-esteem	3.73±0.60	-0.38	0.11	3.81±0.55	-0.15	-0.33
Depression	1.92±0.74	0.73	0.41	1.86±0.74	0.99	1.51

M=Mean, SD=Standard deviation

Table 3.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variables

(N=1475 dyads)

Variables	X1	X2	X3	X4	X5	X6
X1: Family interaction (Mother)	1					
X2: Self-esteem (Mother)	0.47*	1				
X3: Depression (Mother)	-0.45*	-0.59*	1			
X4: Family interaction (Father)	0.56*	0.29*	-0.32*	1		
X5: Self-esteem (Father)	0.25*	0.28*	-0.26*	0.47*	1	
X6: Depression (Father)	-0.26*	-0.22*	0.37*	-0.43*	-0.53*	1

M=Mean, SD=Standard deviation, * $p<0.001$

버지의 경우도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자가 772명(52.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어머니의 경우 전업 주부를 포함한 무직이 833명(56.5%), 아버지의 경우는 관리자 혹은 사무직인 대상자가 683명(46.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은 평균 446만원으로 나타났고, 아동의 평균 만 연령은 75.09개월이며, 부부의 평균 결혼 유지기간은 119개월로 나타났다 [Table 1].

3.2 대상자의 가족 상호작용, 자아존중감, 우울의 정도

각 측정변인은 왜도의 절대값은 2를 넘지 않고, 첨도의 절대값은 4를 넘지 않아 정규 분포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가족 상호작용은 평균 3.78점, 자아존중감은 평균 3.73점, 우울은 평균 1.92점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가족 상호작용은 평균 3.82점, 자아존중감은 평균 3.81점, 우울은 평균 1.86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3.3 대상자의 가족 상호작용, 자아존중감, 우울의 상관관계

각 변수들은 유의수준 0.05수준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의 절대값은 모두 0.8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3].

3.4 대상자의 가족 상호작용과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부모의 가족 상호작용과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모형의 적합도는 $NFI=0.99$, $CFI=0.99$, $TLI=0.99$, $RMSEA=0.01$ 로 확인되어 전반적인 적합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가설적 모형을 분석한 결과, 총 10개의 가설 중 3개의 가설은 기각되었다. 부모의 가족 상호작용은 자아존중감에 자기효과(어머니 $\beta=0.47$, $p<0.001$; 아버지 $\beta=0.47$, $p<0.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가족 상호작용($\beta=-0.19$, $p<0.001$)과 자아존중감($\beta=-0.46$, $p<0.001$)은 우울에 자기효과는 있으나 아버지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가족 상호작용($\beta=-0.42$, $p<0.001$)과 자아존중감($\beta=-0.21$, $p<0.001$)은 우울에 자기효과는 있으나 아버지의 가족 상호작용은 어머니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아버지의 자아존중감($\beta=-0.15$, $p=0.011$)만이 어머니의 우울에 상대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3.5 대상자의 가족 상호작용과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직·간접 효과

부모의 가족 작용과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직·간접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bootstrap)을 실

Table 4. Estimates of variables for the hypothetical model

(N=1475 dyads)

In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s	β	B	S.E	C.R	<i>p</i>
Family interaction (Mother)	---->	Self-esteem (Mother)	0.47	0.54	0.03	20.78	<0.001
Family interaction (Father)	---->	Self-esteem (Father)	0.47	0.50	0.02	20.59	<0.001
Family interaction (Mother)	---->	Depression (Mother)	-0.19	-0.26	0.04	-6.86	<0.001
Self-esteem (Mother)	---->		-0.46	-0.57	0.03	-19.97	<0.001
Family interaction (Father)	---->		-0.05	-0.07	0.03	-1.90	0.057
Self-esteem (Father)	---->		-0.15	-0.17	0.03	-2.53	0.011
Family interaction (Mother)	---->	Depression (Father)	-0.02	-0.03	0.03	-0.73	0.464
Self-esteem (Mother)	---->		-0.03	-0.04	0.02	-1.38	0.166
Family interaction (Father)	---->		-0.42	-0.30	0.04	-7.35	<0.001
Self-esteem (Father)	---->		-0.21	-0.56	0.03	-16.94	<0.001

CR=Critical ration, S.E=Standard error

Table 5. Standardized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 of the hypothetical model

(N=1475 dyads)

In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s	Direct effect (<i>p</i>)	Indirect effect (<i>p</i>)	Total effect (<i>p</i>)
Family interaction (Mother)	---->	Self-esteem (Mother)	0.47(<0.001)		0.47(<0.001)
Family interaction (Father)	---->	Self-esteem (Father)	0.47(<0.001)		0.47(<0.001)
Family interaction (Mother)	---->	Depression (Mother)	-0.19(<0.001)	-0.22(0.010)	-0.41(0.015)
Self-esteem (Mother)	---->		-0.46(<0.001)		-0.46(<0.001)
Family interaction (Father)	---->		-0.05(0.057)	-0.03(0.133)	-0.08(0.112)
Self-esteem (Father)	---->		-0.15(0.011)		-0.15(0.011)
Family interaction (Mother)	---->	Depression (Father)	-0.02(0.486)	-0.02(0.179)	-0.04(0.102)
Self-esteem (Mother)	---->		-0.03(0.166)		-0.03(0.166)
Family interaction (Father)	---->		-0.42(<0.001)	-0.20(0.010)	-0.58(0.014)
Self-esteem (Father)	---->		-0.21(<0.001)		-0.21(<0.001)

시한 결과, 어머니의 가족 상호작용은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에 직접효과가 있으며, 어머니의 가족 상호작용은 어머니의 우울에 직·간접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은 어머니의 우울에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가족 상호작용은 아버지의 자아존중감에 직접효과가 있으며, 아버지의 가족 상호작용은 아버지의 우울에 직·간접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버지의 자아존중감은 아버지의 우울에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4. 논의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2014) 7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학령기 부모가 인지하는 가족 상호작용, 자아존중감, 우울 간의 관계에서 자기 효과와 상대방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된 연구로 이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부모의 가족 상호작용은 부모의 자아존중감에 자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청소년 부모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8]에서 가족 간의 상호작용이 높을수록 부모가 인지하는 자아존중감과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와 유사하다. 가족의 상호작용은 생의 고난에 대한 내적 통제감, 삶에 대한 의미부여, 새로운 경험을 학습하고 탐구하고자 하는 도전성으로 특징지어지는 가족의 내적 힘과 내구성을 의미하는 것으로[27], 가족 상호작용이 극대화 되면 가족은 상호 지지도가 높아지게 되고, 자신의 존재와 삶에 대해서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다[28]. 유아기에서 학령기로 전환된 아동을 둔 부모들은 아동이 적절한 대인관계를 맺고, 문제해결력을 키울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게 되고, 이 과정 속에서 다양한 부모 역할에 대한 갈등과 스트레스 및 부모 역할에 대한 미숙함으로 인한 죄책감으로 자아존중감이 낮아 질 수 있다. 이러한 낮은 자아존중감은 심리적·정신적 건강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29], 학령기 아동을 접하는 의료인들이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 부모의 자아존중감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가족 상호작용 교육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부모가 인지하는 가족 상호작용은 부모의 우울에 자기효과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상대방의 우울에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기 부모를 커플관계로 설정하여 가족 상호작용과 우울간의 관계를 확인한 연구가 미비하여 정확하게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우울과 가족 상호작용은 개인이 인지하는 정서적인 상태이기 때문에[30], 행동이 아닌 인지의 변화만으로는 상대방의 우울 감소에는 효과가 적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부모가 인지하는 가족 상호작용은 우울 감소에 자기효과가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간호 중재나 교육은 학령기 부모의 우울 감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우울에는 부모의 자아존중감이 모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아버지의 우울에는 자아존중감이 자기효과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년 부부를 대상으로 하여 부부의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를 확인한 선행연구[31]에서 부부의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대해 자기효과만 있다는 결과와 일부 유사하다. 그러나 학령기 부모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자아존중감은 어머니의 우울에 상대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국은 전통적으로 아버지의 역할이 가정 혹은 부부 관계에서 갖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남편의 긍정적인 태도가 아내의 정서적인 안정을 도모하는데 영향을 준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Rosenberg[24]와 중년 부부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31]에서도 자아존중감은 부부 사이에 상호작용이 가능한 요인들이라고 강조하였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연구를 시행하여 요인들 간의 관계를 재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우울 감소에 자기 효과가 있으며, 특히 가족 상호작용의 영향을 받아 우울 감소에 대한 총효과를 증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교육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도 학령기 부모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부모가 인지하는 가족 상호작용과 자아존중감이 부모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인해 아동의 성장 발달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모의 정신건강 요인을 조절하는데 기초자료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으나, 인지적이고 심리적인 요인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

하기 때문에 횡단적인 연구가 아닌 종단적인 연구들로 요인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 7차년도(2014년) 자료를 활용하고 부모가 인지하는 가족 상호작용, 자아존중감, 우울의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로, 본 연구 결과 부모의 가족 상호작용과 자아존중감은 부모의 우울을 낮추는데 자기 효과가 있으며, 아버지의 자아존중감은 어머니의 우울을 낮추는데 상대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상호관계가 긴밀한 학령기 부모의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가족의 상호작용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 중재 방안들을 마련하여 부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이 필요하며, 부모의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도 부부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References

- [1] Y. J. Cho, J. A. Han, J. Y. Kim. "A study on the life satisfaction of dual-earner couples with young children aged under six",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vol. 32, no. 3, pp. 33-60, 2012.
DOI: <https://doi.org/10.15709/hswr.2012.32.3.33>
- [2] K. Ponnet, D. Mortelmans, E. Wouters, K. Van Leeuwen, K. Bastiaens, I. Pasteels, I. "Parenting stress and marital relationship as determinants of mothers' and fathers' parenting", *Personal Relationships*, vol. 20, no. 2, pp. 259-276, 2013.
DOI: <https://doi.org/10.1111/j.1475-6811.2012.01404.x>
- [3] M. Y. Kim, M. S. Park. "Interaction effects of social determinants affecting school-aged children's health",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vol. 54, no. 5, pp. 515-527, 2016.
DOI: <https://doi.org/10.6115/fer.2016.040>
- [4] M. Middleton, S. L. Scott, K. Renk, K. "Parental depression, parenting behaviours, and behaviour problems in young children",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vol. 18, no. 4, pp. 323-336, 2009.
DOI: <https://doi.org/10.1002/icd.598>
- [5] J. H. Yang. "Actor and partner effect of young children-parents' family interaction, warmth of parenting style, and depression",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vol. 20, no. 4, pp. 409-433, 2016.
- [6] T. D. D. R. Schudlich, J. Norman, B. Du Nann, A. Wharton, M. Block, H. Nicol, & K. Pendergast, K. "Interparental conflicts in dynamic and triadic contexts: Parental depression symptoms and conflict history

- predict difference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vol. 24, no. 4, pp. 1047-1059, 2015.
DOI: <https://doi.org/10.1007/s10826-014-9914-7>
- [7] J. Y. Lee, M. K. Jang. “The mediating and moderating effects of parenting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role stress and depression among married women”,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 9, no. 2, pp. 339-352, 2008.
DOI: <https://doi.org/10.15703/kjc.9.2.200806.339>
- [8] W. T. Kim, I. S. Lee. “Young children’s self-regulation and social competence with peer based on family interaction style”,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16, no. 1, pp. 1-21, 2009.
- [9] H. Goldenberg, I. Goldenberg. “Family therapy: An overview”, Cengage Learning, 2012.
- [10] J. H. Yang, Y. C. Kim. “Actor and partner effect of young children-parents’ family interaction, child care activities, and parenting stress”, *Asian Journal of Education*, vol. 17, no. 3, pp. 81-106, 2016.
- [11] C. W. Quaedflieg, T. Smeets. “Stress vulnerability models. In Encyclopedia of Behavioral Medicine”, Springer New York. pp. 1897-1900, 2013.
DOI: https://doi.org/10.1007/978-1-4419-1005-9_65
- [12] C. J. Holahan, R. H. Moos. “Life stressors, personal and social resources, and depression: a 4-year structural model”,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vol. 100, no. 1, pp. 31-38, 1991.
DOI: <https://doi.org/10.1037/0021-843X.100.1.31>
- [13] Y. J. Lee, J. S.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depression among married women with young children: The mediating and moderating effects of self-esteem stability”,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 13, no. 5, pp. 2229-2249, 2012.
DOI: <https://doi.org/10.15703/kjc.13.5.201210.2229>
- [14] S. Y. Im, W. S. Yim, “A comparative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depression in married women in Korea and Japan”, *Korean Association of Family Relations*, vol. 17, no. 1, pp. 175-194, 2012
- [15] M. R.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married women’s life stress and depression tendency: The mediating and moderating effects of self-esteem”,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vol. 12, no. 4, pp. 761-777, 2007.
DOI: <https://doi.org/10.17315/kjhp.2007.12.4.006>
- [16] D. E. Jesse, H. Kim, C. Herndon.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as mediators between stress and antepartum depressive symptoms in rural pregnant women”, *Research in Nursing & Health*, vol. 37, no. 3, pp. 241-252, 2014.
DOI: <https://doi.org/10.1002/nur.21600>
- [17] E. M. Yeon, H. O. Yoon, H. S. Choi, “Moderating effects of family incomes on the relationship among marital conflict, depression, and parenting attitude: The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21, no. 2, pp. 1-28, 2016.
- [18] E. M. Yeon, H. O. Yoon, H. S. Choi, “A longitudinal study on the effects of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attitude on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of preschooler: Focusing on actor and partner effects”,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20, no. 2, pp. 495-517, 2016.
- [19] M. J. Seo, E. S. Choi, “The effects of maternal depression on maternal parenting stress among mothers with young children: A focus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mother’s and father’s perceived fatherly involvement in child rearing”,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vol. 20, no. 5, pp. 575-594, 2016.
- [20] A. S. Weitlauf, A. C. Vehorn, J. L. Taylor, Z. E. Warren, “Relationship satisfaction, parenting stress, and depression in mothers of children with autism”, *Autism*, vol. 18, no. 2, pp. 194-198, 2014.
DOI: <https://doi.org/10.1177/1362361312458039>
- [21] N. R. Marmorstein, W. G. Iacono, “Associations between depression and obesity in parents and their late-adolescent offspring: a community-based study”, *Psychosomatic Medicine*, vol. 78, no. 7, pp. 861-866, 2016.
DOI: <https://doi.org/10.1097/PSY.0000000000000334>
- [22] B. R. Bae, “Lisrel structural equation model: Interactive Lisrel”, 2005.
- [23] D. H. Olson. “Faces IV manual”, Life Innovations, 2010.
- [24] M. Rosenberg.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DOI: <https://doi.org/10.1515/9781400876136>
- [25] R. C. Kessler, G. Andrew, L. J. Cople, E. Hiripi, D. K. Mroczek, S. L. T. Normand. “Short screening scales to monitor population prevalence and trends in nonspecific psychological distress”, *Psychological Medicine*, vol. 32, no. 6, pp. 959-976, 2002.
DOI: <https://doi.org/10.1017/S0033291702006074>
- [26] D. H. Demo, S. A. Small, R. C. Savin-Williams. “Family relations and the self-esteem of adolescents and their par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49, pp. 705-715, 1987.
DOI: <https://doi.org/10.2307/351965>
- [27] D. Drotar, M. S. Bonner. “Influences on adherence to pediatric asthma treatment: a review of correlates and predictors”, *Journal of Developmental & Behavioral Pediatrics*, vol. 30, no. 6, pp. 574-582, 2009.
DOI: <https://doi.org/10.1097/DBP.0b013e3181c3c3bb>
- [28] A. S. Lewandowski, T. M. Palermo, J. Stinson, S. Handley, & C. T. Chambers. “Systematic review of family functioning in familie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chronic pain”, *The Journal of Pain*, vol. 11, no. 11, pp. 1027-1038, 2010.
DOI: <https://doi.org/10.1016/j.jpain.2010.04.005>
- [29] S. H. Shin, J. S. Won. “The effects of a self-esteem enhancement parent education program for mothers with children in elementary school”,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vol. 18, no. 4, pp. 492-500, 2009.
- [30] Y. H. Lee, D. G. Kim, E. H. Choi. “The effect on the depression of family cohesion of the mother with a handicapped child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care burden”, *Social Science*, vol. 23, no. 1, pp. 159-180, 2016.
- [31] Y. J. Yang, S. H. Shin. “The effects of self-esteem and family stress on depression of middle-aged couples: analysis of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vol. 23, no. 2, pp. 60-69, 2014.
DOI: <https://doi.org/10.12934/jkpmhn.2014.23.2.60>

한 정 원(Jeong-Won Han)

[정회원]



- 2011년 8월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의료행정학과 (행정학석사)
- 2014년 8월 : 경희대학교 간호대학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고신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관심분야>

대장암, 말초신경병증, 비만